

[네팔] 2023.4/4분기 경제 동향

주네팔대사관, 2024.2.23(금)

〈 경제 동향 요약 〉

[경제성장]

□ 네팔 정부는 FY23/24 네팔 경제성장을 6% 전망 / 세계은행은 3.9%, IMF는 3.5% 전망

- 네팔 정부는 각종 경제지표들이 안정됨에 따라, 경제 활성화를 위해 △금리 인하, △대출 기준 완화, △자본예산 지출 확대, △채무불이행자 대상 채무 조정 등 지원책 추진 중
- 국제개발은행들은 △통화정책 완화, △내수 회복, △수입 억제 완화 효과, △수력발전 용량 확대, △관광업 회복 등을 바탕으로 네팔 경제 성장 전망 긍정적 평가

[물가]

□ '23.12월 네팔 소비자물가상승률 4.95%(식료품 5.10%, 비식료품 4.84%)

- '22.3월부터 7-8%대를 유지하던 네팔 소비자물가상승률은 '23.11월 5.38%로 하락한 후 2개월 연속 하락
- △경기 침체로 건설자재 수요 감소 및 가격 하락, △인도 정부의 점진적 수출 허용, 밀수 증가로 인도산 농식품 공급 증가 및 식품 가격 하락 등이 물가 하락을 견인

[수출입]

□ FY23/24 5개월 간 네팔의 총 상품수입은 6,422.1억NPR(약 48.3억불 / 전년 동기 대비 3.4% 감소), 총 상품수출은 632.1억NPR(약 4.8억불 / 전년 동기 대비 6.1% 감소), 무역적자는 5,790억NPR(약 43.6억불 / 전년 동기 대비 3.1% 감소)

- 경기 둔화 및 수요 감소로 수입 감소 지속
- FY23/24 5개월간 네팔의 對인도 전력수출금액은 123.8억NPR(약 9,320만불)로 전년 동기 대비 51% 증가 / 전력 생산량 증가에 따른 수출 증가 및 인도로의 전력 판매 채널 다각화로 평균 전기 판매 단가 상승

[외환시장/해외직접투자(FDI)]

□ '23.12월 중순 기준 네팔의 외환보유고는 133.1억불로 사상 최고치 기록 ('23.7월 중순 대비 13.7% 증가)

- △상품 수입 감소, △해외 유입 송금액 급증, △관광업 회복('23년 입국 외국인 관광객 수는 '19년의 85%까지 회복) 등이 증가 요인

□ FY23/24 5개월 간 FDI 도착액은 32.3억NPR(약 2,959만불)로, 전년 동기 대비 63% 증가

- FY23/24 상반기 FDI 신고액은 223.3억NPR(약 1.7억불)로, 전년 동기 대비 29% 증가

[해외유입 송금]

□ FY23/24 5개월 간 네팔로 유입된 해외 송금액은 46.2억불로 전년 동기 대비 24.5% 증가

- FY22/23 해외유입 송금액이 사상 최고치를 경신한 가운데, 올해에도 높은 수준을 유지 중
- 이는 △코로나19 이후 해외취업허가 발급 건수가 크게 증가하고(FY22/23 77.5만건으로 사상 최고치), △비교적 고임금의 유럽 및 한국 등지로의 이주 근로 증가에 기인
- 세계은행은 △주 목적지인 중동 국가들의 낮은 물가상승률로 인한 해외 생활비 절감으로 여유 자금 증가, △본국 가족에 대한 생활비 지원 확대, △달러 대비 네팔루피화 가치 하락('23.12월 미달러 대비 NPR 환율은 전년 동기 대비 3.14% 하락 / '23.12월 환율 사상최고치 경신)에 따른 환차익 실현 등으로 송금액이 늘어난 것으로 분석

[평가 및 전망]

- 네팔 정부는 △해외유입 송금액 및 △외환보유고 사상 최고치 기록, △소비자 물가상승률 4-5%대로 완화 등 각종 경제지표가 안정화되자, 이를 바탕으로 네팔의 현 경제 상황을 낙관
 - 이런 가운데, 경기 침체, 소비 둔화, 상품 수입 감소 등이 장기화되면서 정부 세수 부족이 이어지자, 경기 회복을 목표로 '23.8월부터 통화정책 완화
 - 네팔중앙은행이 '23년 두 차례 정책금리를 인하(각각 100bp, 50bp)하면서 '24.1월 현재 시중 은행 예금 금리가 10% 이하로 하락하였으며, 향후 10% 중후반 대를 유지 중인 대출 금리도 하락할 경우 대출 수요 회복 및 경기가 활성화 될 것으로 네팔 정부는 전망
- 국제개발은행들은 △네팔 정부의 통화정책 완화, △내수 회복, △수력발전 용량 확대, △관광업 회복, △정부 인프라 사업 확대 등에 힘입어 네팔 경제 회복 전망을 긍정적 평가

- 다만, 고금리 및 경기 침체로 인해 채무자 대출 상환능력이 저하되면서
시중 은행의 부실채권 비중이 지속 증가하고, 대출 수요 저조로 은행
수익률 악화가 지속됨에 따라 은행 및 금융기관 건전성 관리에 대한
정부 정책을 주문
- 한편, 경제학자들은 네팔의 국내 생산과 수출은 미미한 반면, 상품 수입과
해외 송금액을 기반으로 한 소비가 국내 경제 성장을 주도하고 있는 가운데,
고물가, 고금리로 인한 현 소비 및 수요 둔화가 장기 경제 불황으로 이어질
가능성도 제기
 - 아울러, 젊은층이 취업 및 학업을 위해 대거 해외로 떠나면서 국내
소비가 감소 중임을 우려
- 네팔 정부는 2026년 최저개발국(LDC) 졸업에 대비하여 무역 활성화 및 해외
투자 유치에 중점을 두고 정책 도입 및 개혁을 추진 중이나 아직 효과 미미
 - 네팔 정부는 '24.4.28-29 제3차 네팔 투자 서밋(Nepal Investment Summit)
개최를 준비 중으로, 이를 앞두고 수력발전, 농업, 관광, IT 분야 등에
해외 투자 유치를 위한 정책 개혁 추진 중
 - ※ FY22/23 : '22.7.17-'23.7.16
 - ※ FY23/24 : '23.7.17-'24.7.15
 - ※ FY23/24 5개월 간 : '23.7.17-'23.12.16
 - ※ FY23/24 상반기 : '23.7.17-'24.1.14

1 주요 경제 지표

□ 경제성장률

- (네팔 정부) FY23/24 네팔 경제성장률 6% 전망
 - FY23/24 1분기 경제성장률은 전년 동기 대비 3.2% 성장 추정 / △광업, △건설업, △금융·보험업, △숙박·요식업 등이 전년 동기 대비 10% 이상 성장 추정
 - 정부의 경제 개혁 프로그램이 긍정적 결과를 내고 있는 것으로 평가 / 경기 회복 조짐을 보임에 따라 경제성장 전망에 낙관
 - 아울러 네팔 정부는 경제 활성화 및 안정화 위해 △자본예산 집행 확대, △금리 인하 정책 도입, △채무불이행자 대상 채무조정 등 지원책 도입·추진 중
- (세계은행) 네팔 경제성장률 FY23/24 3.9%, FY24/25 5.0% 전망
 - △통화정책 및 △수입 억제 완화 효과가 긍정 요인
 - 인도의 강력한 경제 성장으로 남아시아 지역 경제성장률은 '23년 5.7%, '24년 5.6%, '25년 5.9% 전망
- (IMF) FY23/24 네팔 경제성장률 3.5% 전망
 - △내수 회복, △수력발전 용량 확대, △관광업 회복이 긍정 요인 / 특히, 에너지 및 인프라 부문이 경제성장을 뒷받침하면서 중기 전망 긍정 평가
 - 다만, 대출 수요 부진으로 은행 수익이 악화되는 가운데, 국제자금세탁방지 기구(FATF)가 지적한 문제(자금세탁, 테러자금조달, 대량살상무기 확산 통제 관련 법률적 결함 등)들이 해결되지 않을 경우 네팔의 금융산업에 대한 국제적인 제재·압박이 발생할 가능성 경고

□ 소비자물가 동향

- '23.12월 네팔의 소비자물가상승률은 4.95% 기록(식료품 5.10%, 비식료품 4.84%)
 - '22.3월부터 7-8%대를 유지하던 네팔 소비자물가상승률은 '23.11월 5.38%로 하락한 후 2개월 연속 하락

〈네팔 소비자물가상승률〉

	'23.9월	'23.10월	'23.11월	'23.12월
소비자물가상승률	8.19%	7.50%	5.38%	4.95%
식료품	9.74%	8.38%	6.01%	5.10%
비식료품	6.99%	6.81%	4.89%	4.84%

- (물가 상승 요인) △정부 세수 확보를 위한 과세 확대(부가가치세 부과 품목 확대, 사치세 신설 등), △美 달러 대비 नेपाल루피화(NPR) 가치 하락*으로 수입 물가 상승, △인도 농식품 수출 통제로 인한 식량 가격 상승 등

* 인도의 식량 수입 증가로 외화 유출이 가속화되면서 인도루피화(INR) 가치가 하락하자, 이에 연동된 नेपाल루피화(NPR) 가치도 하락 / '23.12월 환율이 한때 달러당 133.75NPR로 사상 최고치를 경신하였으며, '23.12월 달러 대비 NPR 가치가 전년 동기 대비 3.14% 하락

- (물가 하락 요인) △경기 침체로 건설자재 수요 감소 및 가격 하락, △인도산 농식품 공급 증가로 식품 가격 하락 등

※ 인도는 '24년 선거를 앞두고 자국내 식량 가격 안정을 도모하고자 '23년부터 연이어 쌀, 설탕, 밀, 양파 등 식량 수출을 통제(수출 금지, 수출 관세 인상, 최저 수출가격 시행 등) / 이에 따라 '23.11월 네팔의 양파 가격이 약 세 배 상승하는 등 식량 가격 인상
- 그러나 밀수를 통해 인도 농식품이 네팔로 비교적 안정적으로 공급되고, 인도도 자국내 식량 가격이 안정화되면서 점차 수출을 허용하면서 네팔 내 식료품 가격 안정세

□ 외환보유고 동향

- '23.12월 중순 기준 네팔의 외환보유고는 133.1억불로 사상 최고치 기록
 - '23.7월 중순 대비 13.7% 증가한 수치로, 국가 전체 상품 및 서비스 수입 11.8개월치 감당량
 - 외환보유고 증가는 △상품 수입 감소, △해외 유입 송금액 급증, △관광업 회복*에 기인

* '23년 한 해 동안 항공을 통해 네팔로 입국한 외국인 관광객 수가 101.5만 명(육로 입국 인도 관광객 수 제외)으로 코로나19 발생 전인 '19년 관광객 수에 비해 85%까지 회복 / '23년 기준 중국 관광객 수는 전체의 6%에 그쳤으나, 향후 중국과의 항공편 점진적 재개에 따라 증가 예상
- 네팔 입국 외국인 관광객 수는 '18년과 '19년 각각 117만 명, 119만 명으로 최초로 100만 명 돌파

□ 해외직접투자(FDI) 동향

- FY23/24 5개월 간 FDI 도착액은 32.3억NPR(약 2,959만불)로, 전년 동기 대비 63% 증가
- FY23/24 상반기 FDI 신고액은 223.3억NPR(약 1.7억불)로, 전년 동기 대비 29% 증가
 - 관광업 45%, 서비스업 37%, 제조업 10% 등 순
 - 네팔 정부가 FY22/23부터 최소 투자한도액을 2,000만NPR(약 15만불)로 낮추면서 소규모 FDI 위주로 증가

- 네팔 정부는 FDI 유치를 위한 '제3차 네팔 투자 서밋(Nepal Investment Summit)'을 '24.4.28-29간 개최 예정
- 특히 수력발전, 농업, 관광, IT 분야 투자 유치를 목표로, 정부는 동 투자 서밋에 앞서 일부 FDI 관련 정책 개혁 추진 중

□ 해외유입 송금 동향

- FY23/24 5개월 간 네팔로 유입된 해외 송금액은 46.2억불로 전년 동기 대비 24.5% 증가
- FY22/23 해외유입 송금액이 사상 최고치를 경신한 가운데, 올해에도 높은 수준을 유지 중
- 이는 △코로나19 이후 해외취업허가 발급 건수가 크게 증가하고(FY22/23 77.5만건으로 사상 최고, FY23/24 5개월 간 27.8만건), △비교적 고임금의 유럽(루마니아, 몰타, 사이프러스, 폴란드 등) 및 한국 등지로의 이주근로 증가에 기인
- 세계은행은 국외 네팔 이주근로자들이 △주 목적지인 중동 국가들의 낮은 물가상승률로 인한 생활비 절감으로 여유 자금 증가, △네팔 본국 가족 생활비 지원 확대, △달러 대비 네팔루피화 가치 하락에 따른 환차익 실현 등으로 송금액이 늘어난 것으로 분석

□ 정부 재정

- FY23/24 상반기 네팔 정부 세출은 5666.2억NPR(약 42.7억불 / 연간 목표치의 32.4%), 세입은 5181.6억NPR(약 39억불 / 연간 목표치의 35.2%)로, 484.6억NPR(약 3.7억불) 재정 적자를 기록
- 경기 침체, 상품 수입 감소 등으로 정부 세수가 악화되면서 재정 적자 발생, '24.1월 현재 정부 발주 인프라 사업의 계약대금 연체액은 463억 NPR(약 3.5억불)
- 이에 따라, 네팔 정부가 공공부채를 확대하면서 '24.1월 현재 네팔의 공공부채는 내국채 1조 1939억NPR(약 89.7억불), 외채 1조 1703억NPR(약 88억불)로 증가
- 국내 금리 인상으로 정부의 내국채 상환 부담 증가 중
- FY22/23 정부가 부채 상환에 사용한 예산은 1,900억NPR(약 14.5억원)으로 전년 대비 61% 증가 / FY23/24 정부의 부채 상환 예산이 자본지출 예산을 초과
- 네팔 정부는 FY22/23 기준 공공부채 규모가 아직까지 GDP 대비 42.6%로, 향후 확대 여지가 있다고 주장

□ 정부 통화정책 완화

- 네팔 정부는 각종 대외경제 지표가 안정화되는 가운데, 경제활동 둔화 및 수입 감소 → 정부 세입 감소 → 재정 부족 및 시장 대출 수요 위축으로 은행들의 예대율(예금 대비 대출금 비율)이 낮아지자*, FY23/24 통화정책부터 신중한 완화 정책으로 기조 전환
 - * '24.1월 현재 시중 은행 예대율은 약 80% 수준(중앙은행 권고치인 90%를 하회)
 - 은행들이 부실채권(NPL) 증가로 건전성이 악화되자('23.8월 기준 전체 대출의 약 3%로 지난 1년간 두 배 증가) 신규 대출 발급 자제
 - 금리 인상과 경기 침체, 정부의 대출 기준 강화로 시장 대출 수요 약화 → 은행 수익률 감소
 - 네팔중앙은행은 '23.8월 정책금리를 100bp 인하한 데 이어 '22.12월 발표한 통화정책 중간 검토를 통해 50bp 추가 인하
 - 부동산 대출 및 마진 거래 대출 기준도 일부 완화
 - 개인채무 구조조정안 마련
 - 다만, 은행들의 지급준비율과 법정유동성비율은 기존대로 유지하는 등 신중한 완화 기조
- 중앙은행의 통화정책 완화로 시중 은행들의 평균 금리가 '23.10월부터 10% 미만으로 하락 / 추후 은행들의 대출 금리도 점차 인하될 것으로 기대

2 수출입 동향

□ 무역 현황

- FY23/24 5개월 간 네팔의 총 상품 수입은 6,422.1억NPR(약 48.3억불 / 전년 동기 대비 3.4% 감소), 총 상품 수출은 632.1억NPR(약 4.8억불 / 전년 동기 대비 6.1% 감소), 무역적자는 5,790억NPR(약 43.6억불 / 전년 동기 대비 3.1% 감소)
 - 주요 수입품목은 △석유제품(18.1%), △기계 및 부품(4.5%), △차량 및 차량 부품(4.4%), △의약품(2.8%), △통신장비(2.7%) 순
 - 주요 수출품목은 △아연판(7.9%), △폴리에스터 실(7.4%), △카펫(7.2%), △주스(5.4%), △카다멈(4.9%) 순

□ 전력 수출

- FY23/24 5개월간 네팔의 對인도 전력수출금액은 123.8억NPR(약 9,320만불)로 전년 동기 대비 51% 증가

- FY21/22 33.3억NPR(약 2,756만불) -> FY22/23 104.3억NPR(약 7,977만불)로 매년 증가 추세
- 전력 생산량 증가에 따른 수출 증가 및 인도로의 전력 판매 채널 다각화로 평균 전기 판매 단가 상승
- '24.1월, 네팔-인도 외교장관은 향후 10년간 네팔의 對인도 전력수출량을 현 657MW → 10,000MW까지 확대하는 계획을 담은 에너지무역협정(MoU) 체결(25년간 유효)
 - 다만, 일각에서는 동 협정이 호혜적 수력발전소에서 생산된 전력만 인도로 수출하기로 되어 있어 향후 인도가 개발에 참여하거나 인도 소유 발전소 생산 전력에 한해 수출을 허가할 가능성이 크며, 이로 인해 네팔 수자원에 대한 인도의 독점 및 의존도가 더욱 심화될 것으로 우려
- 한편, 네팔 당국은 '24.7월부터 방글라데시로 전력(40MW) 최초 수출 추진 중
 - 네팔 및 방글라데시 당국은 전력 수출입 관세 등 세부 사항을 조율 중인 한편, 네팔 → 방글라데시 전력 수출을 실현하기 위한 인도와의 3자 협정 체결 및 협력 메커니즘 구축 추진(인도는 자국 송전 인프라 활용에 원칙적 동의)
 - 방글라데시는 현재 연간 3,000-4,000MW의 전력이 부족하고, '41년까지 전체 국가 소비 전력의 40%를 청정에너지를 통해 조달할 계획인바, 네팔의 수력 에너지 수입을 희망 중
 - 네팔 또한 '35년까지 對방글라데시 전력 수출량을 5,000MW까지 확대 목표

3 인프라 관련 동향

□ 전력 인프라

- 네팔 수자원에너지위원회사무국(Water and Energy Commission Secretariat)은 '23.11월 발표한 연구 결과를 통해, 네팔 보유 잠재 수력 발전량을 72,000MW~73,000MW로 평가
 - ※ 과거 아시아개발은행(ADB) 또한 기술적으로 개발 가능한 네팔의 잠재 수력발전량을 83,000MW로 조사하고, 이 중 경제적 타당성을 지닌 잠재량을 그 절반 정도로 추정
 - 네팔의 '23년 말 현재 수력발전 설비 용량은 약 2,800MW로, 네팔 당국은 '35년까지 28,000MW 이상으로 확대 목표(이중 13,500MW는 국내 소비, 15,000MW는 국외 수출 계획)

- नेपाल 정부는 이를 위한 수력발전소 개발 및 송배전 인프라 구축에 465억불 투입이 필요하며(수력발전소 개발 400억불 + 송전 인프라 구축 55억불 + 배전망 개선 10억불), 재정 마련을 가장 큰 과제로 인식
- 동 계획 실현을 위해서는 국내 전력 소비 확대를 위한 정부의 전기 사용 장려책과 전력 수출 시장 확보를 위한 이웃 국가들과의 전략적인 협상 전략이 필요

□ 공항 인프라

- नेपाल 정부 내각은 '23.11월, 문화관광항공부에 니즈가드(Nijgadh) 新국제공항 건설과 관련된 전문가 보고서 이행을 지시
 - नेपाल 대법원 명령에 따라 니즈가드 국제공항 건설 재검토를 위해 नेपाल 정부가 구성한 전문가 그룹이 보고서를 작성
 - 동 보고서는 △기존 8,045.79헥타르 규모의 공항 부지를 축소하여 1,900헥타르 및 3,845헥타르로 나눠 2단계에 걸쳐 추진하고 △기존에 245만그루 벌채 계획이었던 예정 부지를 인근 대체 부지로 변경할 것을 제안
- ※ नेपाल 정부는 포화 상태에 이른 현 카트만두 트리부반 국제공항 대체를 위해 카트만두 남쪽 68km 지점에 니즈가드 新국제공항 건설을 추진 중이나, 숲으로 이루어진 예정 부지에 공항을 건설할 경우 대규모 벌채가 불가피하여 논란 발생
 - 이에, नेपाल 대법원은 '22.5월 니즈가드 新국제공항 건설 관련 기존 정부 결정을 무효화하고, 전문가 그룹을 구성하여 신공항 건설 계획을 전면 재검토할 것을 명령하였으며, 이를 통해서도 니즈가드 신국제공항 건설이 필요하다고 판단될 경우 벌채를 최소화할 수 있는 대체 부지를 물색할 것을 지시

4 기타 산업별 이슈

□ 농업

- नेपाल 당국은 FY23/24 벼 생산량 추정치가 572.4만톤으로 사상 최대치를 기록한 것으로 발표
 - 이는 전년 대비 4.3% 증가, 최근 4년 평균 대비 5.1% 증가
 - 전문가들은 △엘니뇨 현상에도 불구하고 양호했던 우기 강우량, △충분한 화학 비료 공급, △병충해 및 홍수 피해 발생 사례 감소, △농장 기계화로 인한 수확 후 손실 감소 등을 수확량 증가 이유로 분석
 - नेपाल 당국은 양호한 벼 수확량으로 고물가 억제, 경기 활력, 인도에 대한 쌀 의존도 감소 효과 기대

□ IT 산업

- 네팔 정부는 '23.11월 '소셜 네트워킹 운영에 관한 지침(directives on the Operation of Social Networking 2023)' 발표
 - 페이스북, 유튜브 등의 소셜 미디어를 대상으로 3개월 내 네팔 내 연락사무소 개설 및 관할 당국(정보통신기술부)에 등록하지 않을 경우 서비스 폐쇄 방침 규정
 - 지침 발표 후 네팔 정부는 네팔의 인기 소셜미디어 플랫폼 틱톡(TikTok)이 사회에 부정적 영향을 미친다는 이유로 네팔 내 서비스 전면 금지 / '23.11월부터 현재까지 네팔 내 틱톡 접속 차단 중

□ 통신 산업

- 네팔 최대 민영통신사 Ncell의 지분 80%를 보유하고 있는 말레이시아 기업 Axiata는 '23.11월 보유 지분 전체를 영국계 Spectrlite UK Limited에 전량 매각하고 네팔 시장에서 철수한다고 발표
 - Axiata 측은 △네팔 국내 통신 서비스 요금 하락에 따른 수익 감소, △불확실한 네팔 정부 측의 규제 및 세제, △'29년 통신사업 라이선스 만료에 따른 리스크 등을 철수 이유로 언급
 - (경영 어려움) 최근 네팔의 통신사들은 음성 통화 관련 수익이 급감하면서 수익성 유지가 어려운 상황 / 네팔 내 통신사는 법인세, 부가가치세, 농촌 통신요금보전세 등 다양한 세금을 납부하는 가운데, 통신사 운영을 위한 라이선스 갱신에도 매 5년마다 200억NPR(약 1.5억불) 지불
 - (불확실한 세제) Axiata는 '16년 스웨덴 통신 대기업 TeliaSonera가 보유한 NCell 지분 80%를 역외거래를 통해 전량 인수* / 네팔 정부는 TeliaSonera가 이미 네팔에서 철수했음에도 동 지분 거래에 양도소득세 부과를 결정하고, 이를 Axiata가 납부토록 지시**

* TeliaSonera가 보유한 Reynolds Holding Limited(영국령 버진아일랜드 소재 페이퍼 컴퍼니로, NCell 지분 실소유)를 Axiata Investment(Axiata Group의 영국 소재 자회사)에 매각 / 동 거래 과정에서 TeliaSonera는 네팔 정부의 양도소득세 회피

** 네팔 소득세법은 판매자가 양도세를 납부하지 못하는 경우 구매자에게 이를 부과한다고 규정

- Axiata-네팔 정부 간 오랜 법적 분쟁 끝에 결국 Axiata는 약 446.7억 NPR(약 3.3억불)의 양도소득세를 네팔 정부에 납세하였으며, 잔여 세금 관련 Axiata-네팔 정부 간 분쟁 진행 중

- (기업 자산 양도 의무) नेपाल 통신법은 외국 자본이 50% 이상인 통신사의 경우 25년의 라이선스 만료 후에 자산을 모두 नेपाल 정부에 양도하도록 규정하고 있으며, '04년에 설립된 Ncell의 라이선스가 '29년에 만료됨에 따라 기업 자산 전체를 नेपाल 정부에 양도해야 하는 상황
- 이번 Axiata의 Ncell 지분 매각 과정에서 △지분 매각가가 지나치게 저평가된 데 따른 탈세 의도 여부, △통신사 라이선스 만료 후 नेपाल 정부에의 자산 양도 의무 회피 의혹, △지분 매각 과정에서 नेपाल 통신법 규정 미준수 등을 두고 नेपाल정부-Axiata 간의 논쟁이 지속될 것으로 예상
 - (탈세) Axiata는 '16년 13.65억불에 인수한 Ncell 지분 80%를 5,000만불에 매각(서류상으로는 Reynolds Holding Limited를 매각) / 비현실적으로 저평가된 매각가를 두고 양도소득세 회피 등의 탈세 의혹이 제기
 - Axiata 측은 △Ncell의 현 기업 가치가 약 4억불에 불과하고, △주식매매 계약에 일부 조건부 계약이 포함되어 있어 '29년까지 추가 지급(Ncell의 사업 성과, 순배당, 횡재이익에 대한 일정 비율)을 받도록 되어있기 때문에 5,000만불로 책정한 것이라고 설명
 - (자산 양도 의무 회피) Spectrlite UK Limited은 '23.9월 싱가포르에 거주 중인 नेपाल계 재외동포 Satish Lal Acharya가 영국에 설립한 회사로 (Acharya는 Ncell의 나머지 지분 20%를 보유하고 있는 Bhavana Singh Shrestha의 남편), 이번 매각을 통해 Ncell의 소유주가 외국인 → नेपाल계 재외동포로 교체 / 이를 두고 NCell이 '29년 라이선스 만료에 따른 자산 양도 의무(외국 자본 50% 이상인 통신기업에만 적용)를 회피하기 위한 목적이라는 의혹 제기
 - (규정 미준수) नेपाल 통신법 상 통신사 지분 매각 시 नेपाल 통신 당국의 사전 승인을 받도록 되어있는바, Axiata가 지분 매각을 사전에 당국에 통보 및 승인 취득하지 않은 것이 문제로 제기 / 다만, Axiata가 매각한 NCell 지분의 소유주는 여전히 Reynolds Holding Limited인바, 이에 대한 당국 사전 승인 필요 여부가 모호
- नेपाल 정부는 상기 쟁점 관련 조사를 위해 Axiata의 NCell 지분 매각을 승인하지 않고 있으며, 예정대로 '29년에 NCell 자산이 नेपाल 정부로 양도될 수 있도록 방침 마련 중
 - 한편, 동 사안을 계기로 नेपाल 통신법이 지나치게 외국인 투자자에게 불리한 점(△25년의 라이선스 만료 후 नेपाल 정부에 자산 전체 양도 의무 및 △지나치게 높은 라이선스 갱신 비용)이 문제로 지적되면서 이에 대한 개정 필요성도 제기

□ 전기차 산업

- FY23/24 상반기 네팔이 수입한 전기자동차는 5,107대로(주로 BYD, MG, Seres, Great Wall Motor, NETA 브랜드의 중국산 전기차 및 Tata 등의 인도산 전기차가 대부분을 차지), 액수 기준 127.3억NPR(약 9,582억불) / 전년 동기 대비 158% 증가
 - '22년부터 전기차 수입이 증가 추세로, 수입액 기준으로 전기차 수입 비중은 전체 자동차 수입의 1/3 차지 / 네팔 자동차판매협회에 따르면 '23년 말 현재 전기차와 일반차 판매 비율은 6:4
 - 이는 △일반차 대비 저렴한 세금(일반차 세금(관세, 소비세 등)은 최대 261%, 전기차는 통상 10-40% 수준), △용이한 자동차 대출(시중 은행은 전기차 구입시 차량 금액의 90%까지 대출), △전기차 충전소 인프라 확대 등에 기인
- 한편, 이번 회계연도부터 전기차 세금(관세 및 소비세)을 인상(FY23/24부터 판매가 가장 많은 모터 최대출력량 기준 51-100 kW 차량의 세금을 기존 10% → 25% 인상)했음에도 판매량이 급증하자 네팔 재무부는 관세 추가 인상 검토 시작
 - 네팔 정부는 △추가 세수 확보, △일반차량과의 관세 형평성, △전기차 세제 혜택의 효율성 등을 감안해야 한다고 주장

□ 항공 산업

- 유럽 집행위원회(European Commission)는 '23.11월 EU 항공안전목록(EU Air Safety List)을 업데이트하고, 네팔 항공사들에 대한 EU 내 운항 금지·제한을 계속해서 유지하기로 결정
 - EU 항공안전청 '23.9월 실사를 통해 네팔의 항공 안전 관련 결함이 확인 되었으며, 네팔 항공 당국(CAAN)의 항공 안전 기준 준수에 대한 책임 이행이 부족하다고 지적
 - 네팔 항공사들은 '13.12월부터 EU 항공안전목록에 포함되어 있으며, CAAN을 항공 서비스 운영 기관 및 관리 감독 기관으로 이원화하는 법안 처리가 계속해서 지연 중. 끝.